

서민의 정의에 대한 탐색적 고찰

An Exploratory Study on How to define Seomin

송유진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Yoo-Jean Song(yjsong28@dau.ac.kr)

요약

서민이라는 용어는 언론이나 정치적 논의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서민이 누구인지, 서민을 어떤 기준으로 정의할 수 있는지, 서민과 중산층은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하였다. 이 논문은 전국 규모의 설문조사와 2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여 서민에 대한 정의와 인식을 탐색적인 수준에서 살펴보았다. 대다수의 조사응답자들은 스스로를 서민으로 인식하며, 서민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경제적 소득이라고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서민은 고등학교 졸업, 월평균 200~300만원의 수입, 20평 전셋집에 거주하는 영세자영업자나 숙련노동자, 낮은 직급의 화이트칼라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 정의하였다. 또한 서민은 계층상승의 가능성도 있지만 계층하락의 불안감도 지니는, 빈민과 중산층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일부는 중첩된 집단으로 인식하였다. 스스로를 서민으로 규정하는 사람들은 중산층을 부러워하거나 자신의 계층적 위치를 폄하하기 보다는 자신의 계층적 지위에 대하여 자긍심을 가지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민 스스로의 자긍심과 희망이 유지,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서민을 정의하고 서민의 구체적인 특성과 정책욕구를 파악하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

■ 중심어 : | 서민 | 중산층 | 자긍심 | 정의 | 불안감 |

Abstract

Seomin has been used frequently in mass media and political discussion. However, who is Seomin, how to define Seomin, and whether Seomin and middle class are different has been rarely discussed. This study conducted both national level of survey and in-depth interviews and explored how to define Seomin and who respondents think as Seomin. The majority of respondents consider themselves as Seomin and that monthly income is the most important criteria to define Seomin. Seomin was considered as those who have high school education and 200~300(million won) monthly income, live in a rented house, and work as a small-scale self-employer, skilled laborer, and low level of white collar workers. Also, Seomin is a precarious group which can achieve upward or downward mobility and is located between low and middle class. Those who have Seomin identity tend to have pride in their social status and hope for upward mobility rather than depreciate their social status or envy the middle class. In order for Seomin to be able to achieve upward mobility and to maintain pride in current status, diverse social policies are needed. Further analyses on examining characteristics and policy needs of Seomin are needed.

■ keyword : | Seomin | Ordinary People | Middle Class | Pride | Definition | Insecurity |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A2A03033953).

접수일자 : 2015년 09월 21일

심사완료일 : 2015년 11월 02일

수정일자 : 2015년 10월 26일

교신저자 : 송유진, e-mail : yjsong28@dau.ac.kr

I. 서론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계층 불평등 현상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양극화 현상을 완화시킨다는 취지에서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는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서민은 누구이며 중산층은 누구일까?

서민과 중산층이라는 용어는 둘 다 명확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언론이나 일상에서 빈번히 사용되어 왔다. 1990년대 후반에 발생한 경제위기 이후 중산층의 몰락과 위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어떤 사람들을 중산층으로 정의할 것인지, 계급과 계층 연구에서 중산층을 어디에 자리매김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반면 서민에 대한 학술적인 논의는 미미하다.

서민은 중국 춘추전국시대부터 일반 평민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사전적인 정의는 ‘사회적인 특권이나 경제적인 부를 누리지 못하는 일반사람’이다 [1][2]. 그러나 서민은 정확히 어떤 사람들을 일컬으며 어떤 기준으로 서민을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나 합의는 이루어진 바 없다 [1][3]. 대통령 연설문과 각종 신문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민은 명확한 정의도 실체도 없지만 주택, 금융, 경제 등 각종 정책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왔다 [4].

경제나 금융 관련 정책연구에서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서민을 규정하기도 한다. 백종화(2003)는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상 100% 미만을 서민층으로 정의하였다. 특정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이 명확해야 한다. 따라서 소득을 기준으로 임의로 서민을 규정하는 것은 정책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소득을 기준으로 위에서 아래로 (top-down) 내려지는 정의(definition)는 일반인들이 체감하고 인식하는 현실과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위해서는 정책 대상으로 규정되는 사람들이 정책에 대하여 공감하고 인지하여야 하며 이들의 특성이나 욕구가 면밀히 파악되어 반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은 서민 관련 정책들

이 제안되고 논의되었으나 어떤 사람들을 서민이라고 정의할 것인지, 서민으로 정의되는 사람들의 특성은 어떠한지, 서민이 집합적인 정체성을 지니는 차별적인 집단인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된 적은 거의 없다. 특히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사람들을 서민이라고 생각하며 서민을 정의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한 적도 많지 않다. 정책적 목적에서 전국조사를 통하여 서민을 정의하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간략한 보고의 형태로 그치거나 사례수가 적어서 충실한 논의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1][5].

이 연구는 서민이라는 용어가 다양한 용례로 꾸준히 사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개념 정의나 특성을 파악하려는 시도가 부족하였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며 출발하였다. 전국 규모의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주제는 응답자들이 1) 어떤 사람을 서민이라고 생각하는지, 2) 서민을 정의하는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3) 서민을 다른 집단(예: 중산층)과 비교하였을 때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4) 계층적 범주에서 서민을 어디에 자리매김 하는가이다.

위의 주제에 대하여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기 보다는 탐색적인 수준에서 살펴봄으로써 일반인들이 서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인식과 정의, 계층귀속의식, 스스로 서민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서민의 특징과 차별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하여 한국사회에서 서민은 어떤 사람들로 이해되는지 귀납적으로 유추하여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심층적 연구가 진행되는 데에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계급·계층 관련 연구

한국사회에서 계급과 계층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1990년대까지는 이론적인 수준에서 계급과 계층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외국 학자들의 이론을 한국사회에 맞게 재구성하여 계급을 구분하는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6]. 2000년대부터는 경험적인 자료를 활

용하여 특정 계급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주관적인 계층 의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7].

기본적으로 계급이라는 용어는 마르크스가 주장한 경제적 자본 소유 여부에 따른 구분이며, 계층은 경제적 자본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위세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베버의 논의에 근거한다. 한국사회에서는 계급이라는 용어가 정치적으로 금기시되면서 계층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였고, 계급과 계층을 유사한 의미로 혼용하였다[6].

그러나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계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한국의 계급을 자본가 계급, 신흥부르조아지, 노동자 계급으로 나누기도 하고 자본가 계급, 신중간계급, 노동계급, 신흥부르조아지, 주변계급으로 나누기도 한다. 혹은 상층계급, 중간계급, 하층계급으로 구분한다[6]. 이러한 계급 구분의 기준은 주로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 노동력의 구매와 판매, 육체노동과 비육체노동의 구분에 근거한다[6].

베버주의자들은 한국의 계층을 상류층(부유층), 중산층, 하류층(빈곤층)으로 구분하며 중산층 내의 다양성에 주목하였다[8]. 홍두승(2005)은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중산층 내에서도 핵심적 중산층과 주변적 중산층으로 나누고 중산층보다 낮은 집단을 하층으로 구분하였다. 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경제적 소득 외에 교육수준, 주거수준, 직업지위가 고려된다. 최근에는 계급적 구분보다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는 계층적 구분이 주로 사용되며, 소비행태와 문화생활 등도 고려된다.

계급이나 계층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서민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홍두승(2005)이 분류한 주변적 중산층이 언론에서 일컫는 서민과 동일한 집단이 아닐까라는 정도로 생각하거나 서민은 중산층과 빈곤층 사이의 '긴 계층'으로 여겨질 뿐 학문적 논의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다. 이는 서민이라는 용어가 사회적 차원에서 착취, 지배의 사회·정치적 관계를 모호하게 하여 불평등을 희석할 수 있는 대중적 용어라는 점에서 기존의 계급, 계층 연구에서 언급하기를 꺼려왔기 때문이다[9].

중산층이라는 용어 역시 한국적 상황에서 만들어져서 언론에서 사용되면서 일상의 친밀성을 가지게 되었

으나, 학문적인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다. 지난 1990년대 이후부터 중산층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서민이라는 용어 역시 언론과 정책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되었으나 학문적 논의는 활발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의 계급 및 계층 구분을 바꾸어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8]. 구해근(2007)은 한국사회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계층·계급의 분절화 및 재구성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포착하여 새로운 구분을 시도하는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동일한 맥락에서 장세훈(2015)은 사회경제적 변동에 따라 중산층이 분화, 분절, 분해되는 과정에서 서민이라는 집단이 생겨났으며, 이제는 서민이라는 개념에도 “학술적 시민권(장세훈, 2015)”을 부여하여 계층·계급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서민을 판별하는 기준과 정의, 서민과 중산층의 차이 등 다양한 연구와 계층·계급을 구분하는 새로운 틀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2. 중산층 관련 연구

중산층에 대한 연구는 지난 1990년대 이후에 활발히 이루어졌다. 중산층 역시 서민과 마찬가지로 언론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지만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용어이다. 사용되는 맥락이나 시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기도 한다.

홍두승과 김병조(2008)에 따르면 ‘중산층’이라는 용어는 1960년대에 처음 사용되었는데 이때의 의미는 마르크스적 계급 관점에서 ‘중간계급’과 일치하였다. 이후 1980년대 연구에서는 중산층을 자영업자와 자영업은 물론 화이트칼라 또는 신중간계급까지 포함하여 정의하였다[10]. 계층적인 접근을 취한 학자들은 중산층을 “소득, 주택, 교육수준, 직업 등을 종합해서 중간적 생활양식을 지닌 집단”으로 상정하기도 하였다[11-13].

홍두승(2005)은 중산층을 정의하고 판별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직업, 소득, 자산, 교육수준, 문화생활을 사용하였고 주관적인 기준으로 계층귀속의식을 사용하였다. 위의 기준을 사용하여 조동기(2006)는 화이트칼라와 중간계급, 2년

제 대학 이상의 교육수준, 월평균 소득 300만원 이상, 30평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중산층으로 정의하였다. 홍두승과 김병조(2008)는 중산층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계급적 지위에서는 신·구중단계급에 속해야 하며, 소득과 자산은 중간 정도 이상이어야 하고 2년제 대학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장세훈(2007)은 한국사회에서 주택이 지니는 특수한 의미(생활기회의 차이를 드러내는 핵심적 소비자산일 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문화적 수준을 드러내는 표상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중간정도의 주택자산을 소유한 사람들을 중산층으로 규정하였다. 일부 학자들은 중산층의 다양성에 주목하여 핵심적 중산층, 주변적 중산층, 비중산층으로 구분하기도 하고[13], 한계중산층과 전형적 중산층으로 나누기도 한다[14]. 다양한 기준을 포괄하는 위의 연구들과는 달리 중위소득만을 기준으로 중산층을 규정하고 규모 및 추이변화를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15-17]. 최근의 한 연구는 중산층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6].

중산층의 규모와 변화추이를 파악하거나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이는 다양한 차원을 포괄하지 못하며 객관적인 정의 못지않게 주관적인 계층귀속의식이 중요함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산층의 주관적 계층의식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된 바 있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응답자들의 중산층 귀속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택 소유가 가장 중요하며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소득수준과 재산수준이 중요하다고 밝혀졌다[16][17]. 최근에는 중산층을 판별하고 이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경제적인 차원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차원과 소비생활에 주목하기도 한다[19][20].

그동안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중산층을 정의하기 위한 단일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양한 기준을 포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객관적인 측면 못지않게 주관적인 측면도

중요하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다만 한국사회에서는 주택의 소유 여부와 가구소득이나 자산과 같은 경제적인 측면이 중산층을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

3. 서민 관련 연구

중산층에 대해서 많은 학문적 논의가 있었던 것과는 달리 서민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축적되지 않았다. 다양한 정치적 맥락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서민이 과연 실체가 있는지, 다른 집단과 구분할 수 있는 차별적인 특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은 많지 않다. 서민을 판별하는 기준을 확정하거나 명확하게 정의하려는 시도 역시 많지 않았다. 정책적인 목적에서 서민을 규정하고 이들의 정책 욕구를 파악하려는 설문조사와 결과 보고서가 대부분이다[1][3][5].

김승권과 이태진(2010)은 20세부터 69세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조사 결과 서민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과 재산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서민은 '저소득층을 포함한 중간소득 아래계층'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조사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에 그칠 뿐 구체적으로 서민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거나 심층적인 논의로 이어지지 않았다. 강신욱 외(2012)는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서민은 '소득이나 재산이 적은 사람'으로 인식되며 중산층과 빈곤층 사이에 위치하면서 두 집단과 일부 중첩된다고 하였다.

백종화(2003)는 경제위기 전후의 중산층과 서민의 시장소득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민은 중위소득 50% 이상 100% 미만, 중산층은 중위소득 100% 이상 150% 미만으로 정의하였다. 시계열 자료 분석을 통하여 경제위기 이후 서민이 지속적으로 한계계층에 편입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서민은 중산층과는 달리 경제위기와 같은 외부의 부정적인 충격이 있을 때 극복하기 어려운 집단임을 입증하였다.

위의 연구들은 서민을 규정하거나 서민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다만 심층적인 학술적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집과 서민을 어떻게 정의하며 다른 계층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와 같은 다양한 의미 파악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 제한점으로 남는다.

남찬섭 외(2013)는 서민이라는 용어가 신문기사와 대통령 연설문에서 어떤 용례로 얼마나 자주 사용되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1920년대부터 2012년까지의 주요일간지 기사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서민이라는 용어는 1970년대부터 빈번히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에 들어서 급증하였다. 서민 관련 신문기사가 소비자 물가상승률 및 지니계수와 관계가 있는지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1990년 이전까지는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서민기사의 빈도가 정적인 관계를 보인 반면 1990년 이후부터는 지니계수와 서민기사의 빈도가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는 점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서민은 1990년 이전까지는 생활고를 대표하는 물가와 연관되어 표상되는 집단이었던 반면, 1990년 이후에는 분배구조의 악화 내지는 양극화와 연관되어 표상되는 집단인 것으로 추정하였다[4].

위의 연구는 장기적인 기간에 걸쳐 일간지 기사와 대통령 연설문을 분석하였다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학술적으로 서민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논의를 시도하였다는 점과 서민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정치적 맥락과 사회적 배경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다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서민에 대한 인식과 차별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서민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

이 연구는 서민을 정의하고 서민의 차별적인 특성을 논하는 학술적인 시도가 부족하였던 기존연구의 제한점들을 보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전국규모의 설문 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조사결과들을 바탕으로 서민에 대한 인식, 서민을 정의하는 기준, 다른 집단과 차별적인 서민의 특성 등을 탐색적인 수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및 자료 설명

이 연구는 2013년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만 20세 이상 74세 이하의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규모(제주도 제외)의 설문조사자료(<서민에 대한 조사>)를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은 가구주 혹은 가구주의 배우자로 제한하였고 표본은 인구센서스 자료를 기초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할당하여 추출하였다. 구체적인 질문은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정의와 판별기준, 인식, 개인의 소비생활과 경제활동,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 가치관, 개인의 계층귀속의식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표 1. 설문조사 응답자의 기본적인 특성

특성	사례수(%)
성별	
남자	750(50%)
여자	750(50%)
연령	
20대	155(10.3)
30대	319(21.3)
40대	400(26.7)
50대	339(22.6)
60~74세	287(19.1)
학력	
중졸 이하	213(14.2)
고졸 이하	550(36.7)
전문대 이하	216(14.4)
4년제 대학 이상	521(34.7)
혼인상태	
기혼	1206(80.4)
미혼	167(11.13)
사별/별거 및 이혼/기타	127(8.47)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65(4.3)
100만원~200만원 미만	198(13.2)
200만원~300만원 미만	339(22.6)
300만원~400만원 미만	409(27.3)
400만원~500만원 미만	283(18.9)
500만원 이상	206(13.7)
주택 소유형태	
자가	933(62.2)
전세	444(29.6)
월세/기타	123(8.2)
계층 귀속의식	
부유층	2(0.1)
중산층	275(18.3)
서민	1131(75.4)
빈민층	92(6.1)
N	1500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기본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총 응답자 1,500명 중 성별 비율은 동등하다. 연령별 구성은 30대~50대가 대다수이며 20대와 60대 이상도 각각 10~20% 가량을 차지한다. 학력수준은 고졸 이하가 36.7%로 가장 많으며 4년제 대학 이상의 비율도 34.7%로 높다. 혼인상태는 80%가 기혼이며 미혼은

11%, 사별/별거 및 이혼/기타가 9% 가량을 차지한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300만원~400만원 미만이 27.3%, 200만원~300만원 미만이 22.6%, 400만원~500만원 이상이 18.9% 순서이다.

주택 소유형태는 절반 이상이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전세인 경우가 30%, 월세 및 기타가 8% 가량을 차지한다.

계층귀속의식을 살펴보면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대다수(75.4%)가 스스로를 서민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18% 가량이 중산층, 6%가 빈민층, 0.1%만이 부유층으로 스스로를 규정하였다. 기존의 계층구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상류층(부유층), 중산층, 하류층(빈곤층)으로 구분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조사에서는 기존의 3가지 구분에 덧붙여 서민이라는 응답 범주를 추가하였다. 이는 설문조사와 연구 자체가 서민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며, 설문문항과 응답범주는 강신욱·이현주·박수진(2011)

의 연구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하다. 응답자의 대다수가 스스로를 서민으로 인식하는 것 역시 강신욱·이현주·박수진(2011)의 연구에서 응답자의 67%가 스스로를 서민으로 인식하는 경향성과 유사하다.

설문조사로는 파악되기 어려운 개인의 생애사적인 내용과 계층귀속의식의 변화,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정의 및 인식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개별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 대상자는 일차적으로는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들 중 동의를 구하여 선별하였으며, 일부는 연구진들이 주변의 소개로 섭외하였다. 최종적인 심층면접은 서울과 경기 지역 및 부산에 거주하는 25명을 대상으로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수행되었다. 심층면접 응답자의 기본적인 특성은 [표 2]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총 응답자 25명 중 남성 8명, 여성 17명으로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연령 분포는 30세부터 67세까지 비교적 다양하며, 미혼 여성 1명과 이혼한 여성 2명을 제

표 2. 심층면접 대상자의 기본적인 특성

이름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주택소유	혼인상태	계층인식
A	남	53	공기업 부장직급	4년제 대졸	자가 아파트	기혼	서민
B	남	67	운송업 및 자영업	중졸	전세 주택	기혼	서민
C	남	66	부동산 중개업	초졸	자가 아파트	기혼	서민
D	남	37	공무원 (우체국)	4년제 대졸	분양받은자가 아파트 대기중 (대출)	기혼	서민
E	남	52	자동차 행사	고졸	전세 주택	기혼	서민
F	남	55	옷 수선업	고졸	자가 주택	기혼	서민
G	남	57	퇴직 (과거 컨테이너 관리)	고졸	전세 주택	기혼	서민
H	남	52	외국계 기업 대표	석사	자가 아파트	기혼	중산층
I	여	59	전업주부 (과거 식당 주방장)	중졸	자가 주택	이혼	서민
J	여	30	미술학원 교사	전문대 졸	반월세	기혼	서민
K	여	33	정신보건 상담사	4년제 대졸	반월세 원룸	미혼	서민
L	여	61	복권 판매업	고졸	자가 주택	기혼	서민
M	여	45	전업주부	고졸	전세 아파트	기혼	서민
N	여	43	전업주부	고졸	자가 주택(대출)	기혼	서민
O	여	60	전업주부	석사	자가 아파트	기혼	중산층
P	여	35	중소기업 경리	고졸	자가 아파트(대출)	기혼	서민
Q	여	40	전업주부	4년제 대졸	전세 아파트	기혼	중산층
R	여	50	미용사	고졸	자가 아파트(대출)	기혼	서민
S	여	56	과외교사	4년제 대졸	전세 아파트 (아파트 2채 소유)	기혼	중산층
T	여	44	교사	4년제 대졸	전월세 아파트	기혼	중산층/서민 복합
U	여	39	전업주부	고졸	자가 아파트	기혼	서민
V	여	53	전업주부	고졸	자가 빌라	기혼	서민
W	여	46	자영업	고졸	자가 주택	기혼	서민
X	여	49	자영업	중졸	자가 아파트	기혼	중산층
Y	여	41	자영업	고졸	시택 명의	이혼	서민

외하고는 모두 배우자가 있는 기혼 상태이다. 교육수준은 고졸이 가장 많으며 4년제 대졸, 전문대졸과 중졸로 다양하다. 직업은 자영업이 가장 많으며 주택 소유 형태는 자기 집을 소유한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물론 평수나 거주 지역에 차이가 있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으나 자기 집을 소유한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은 설문조사의 결과와 유사하다. 계층귀속의식은 총 25명 중 5명만이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인식하였고 나머지는 스스로를 서민으로 인식하였다. 즉 대다수가 서민으로 스스로를 인식한다는 점 역시 설문조사 결과와 유사하다.

이 연구는 구체적인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탐색적인 성격에서 응답자들이 서민을 어떻게 정의하며 서민을 정의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서민을 중산층이나 다른 계층과 어떻게 구별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설문조사 자료는 기술적인 수준의 통계를 제시하며, 심층면접 자료는 NVIVO 10을 이용하여 기본적인 분류를 하였다.

IV. 조사결과

1. 서민을 정의하는 기준과 서민에 대한 이미지

서민이나 중산층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도, 판별기준도 없다. 따라서 개인마다 다르게 정의할 수 있고, 경제적인 속성 뿐 아니라 교육수준과 직업 등 다양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응답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서민을 정의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에서 “우리 사회에서 서민이 누구인지 정의한다고 할 때 어떤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만 순서대로 답해주시오”라는 질문을 하였다. 응답자 중 80%가 경제적 수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고, 2순위로는 직업

(38%)과 주거실태(31%)를 꼽았다. 압도적인 비율로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서민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경제적인 수준을 꼽았다는 사실은 경제적 자본의 중요성을 반영한다.

서민이라고 할 때 떠올리는 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서민은 어느 정도의 학력수준, 주거실태, 주거면적(4인 기준), 월평균소득, 직업을 지닐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4%가 서민은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집단일 것으로 응답하였다. 서민과 연상되는 학력수준은 없다는 응답이 22%, 4년제 대학을 졸업했거나 전문대 졸업의 학력을 지녔을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10% 가량을 차지하였다.

주거형태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56%)이 서민은 전세로 살 것이라는 응답을 하였고, 자기 집을 소유할 것이라는 응답은 25%였다. 서민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평 정도에 거주할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26%가 20평, 19%가 25평, 13%가 23평 순서로 과반수 가량이 서민은 20평대의 집에서 살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부동산법에서 서민주택을 85m² 이하로 정의하고 이러한 기준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 외에도 응답자들은 서민의 월평균소득은 193만원에서 305만원 가량일 것으로 생각하며 서민의 직업으로는 도소매 상점주인 혹은 점원, 계장 이하의 일반사무직, 공장의 숙련근로자 등을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서민은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교육수준을 지니며 숙련노동자나 소규모 자영업, 낮은 직급의 화이트칼라 직업을 가지고 월평균 200~300만원을 받으면서 20평대의 전셋집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중산층은 어떤 사람들로 생각할까? 중산층은 30평대나 40평 정도의 집에 살며 월평균 소득은 380만원에서 560만원 정도인 사람들로 생각한다. 또한 중

표 3. 빈민, 서민, 중산층의 계층적 위치

1	2	3	4	5	6	7	8	9	10
	빈민								
			서민						
					중산층				

주: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빈민, 서민, 중산층이 속한다고 생각하는 구간은 모두 색깔을 칠하고 과반수 미만인 경우는 응답비율에 따라 구간에서 차지하는 넓이를 조정하였음.

산층의 직업으로는 중간관리직 정도의 회사원이나 은행원, 교사, 혹은 대기업이나 은행의 간부를 떠올렸다. 서민과 비교하면 중산층은 확연히 경제적인 수입도 높고 직업도 안정적인 화이트칼라를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구조를 1부터 10까지로 보았을 때 빈민과 서민, 그리고 중산층이 각각 어느 정도의 구간에 위치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빈민은 가장 낮은 계층적 지위를 점유하는 집단으로 인식된다. 서민은 주로 3~6의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부터 중간적 위치까지 넓은 구간에 걸쳐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서민 내에서도 위치의 차이가 있어서 서민의 낮은층은 빈민의 높은층과 일부 겹쳐지는 것으로 인식된다.

중산층은 주로 6~8이라는 중간부터 비교적 높은 층까지 걸쳐있다. 그러나 중산층의 하위 절반 정도는 서민 중 높은 층과 겹쳐지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는 빈민과 겹쳐지는 것보다 훨씬 넓은 구간으로 표현된다. 즉 응답자들은 서민이 빈민이나 중산층과 명확하게 분리되는 집단이 아니라 겹쳐질 수 있는 집단으로, 그러나 빈민보다는 중산층과 겹쳐질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집단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심층면접을 통하여 어떤 사람들을 서민으로 생각하며 서민과 중산층의 차이는 무엇인지를 질문한 결과,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서민을 “평범한 사람(H, I, K, Q, Y)” “빡빡하게, 빠듯하게, 쪼들리는 사람(B, E, F, G, K, O, R, W)” “비밀 언덕이 없는 사람(Q)” “사는 게 바쁜 사람(E, G, W)”으로 묘사하였다. 또한 “기본 생활은 할 수 있지만 경제적, 시간적,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문화생활이나 여행, 외식, 자녀 사교육 등을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사람(G, H, I, J, P, W)” “매달 기본 생활은 되지만 저축하면서 살기 어려운 사람(R)” “갑작스러운 목돈 들 일이 걱정스러운 사람(K, Q)” “현재를 살수는 있지만 미래를 계획하면서 노후를 준비하기 어려운 사람(D, F)”이라고 표현하였다. 반면 중산층은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자기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B, E, F, J, M, N, O, V)” 혹은 “기본 자산이 있는 사람들(C, F, G, M, N, Q, R, S, V, X)”로 정의한다.

종합하면 서민은 기본적인 생활에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 생계유지에 급급한 빈민과는 다르게 인식된다. 그러나 기본 자산이나 저축을 통하여 축적된 여윌돈이 없기 때문에 기본 생활 이외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면 대응하기 어렵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점에서 중산층과도 다르다. 갑작스러운 사건이나 사고를 겪어도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망과 자본을 소유한 중산층과는 달리 서민은 언제든지 빈민으로 떨어질 수 있는 불안함을 지닌 집단이라는 생각이 깔려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서민을 정의하는 기준, 그리고 중산층과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척도는 무엇인지는 질문에 대해서는 25명 중 24명이 경제적인 소득을 중요한 기준으로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4인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서민은 200~300만원의 월평균소득을 받는 집단이며(F, I, L, M) 중산층은 월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인 집단(C, G, I, L, M, O, V, X, Y)으로 구분하였다.

주택 소유 여부와 부채 여부도 서민과 중산층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인식되었다. 가령 집이 있어도 대출이 없거나 대출이 있더라도 생활에 부담이 없어야 중산층이고, 집은 있으나 대출이 많아서 생활에 부담이 되는 하우스 푸어(house poor)는 서민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대출 없이 집이 있더라도 소득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오래되어 허름하거나 평수가 작으면 서민으로, 평수가 크고 소득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면 중산층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2. 서민의 특성과 계층지위에 대한 인식

그렇다면 사람들은 서민을 동질적인 특성을 지닌 집단으로 생각할까? [표 3]에서 나타나듯이 설문조사의 응답자들은 서민이 여러 층에 걸쳐 있으며 일부는 빈민이나 중산층과도 겹칠 수 있는 이질적인 특성을 지닌 사람들의 집단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심층면접에서도 이와 유사한 응답이 포착된다. 가령 “같은 서민이라 하더라도 여러 층으로 나뉜다고 봅니다. 소득만이 아니라 소비성향, 가치관에 따라서...(I)”, “서민도 어떤 서민이냐에 따라 다르지요. 밑에 서민이 있고 중산층하

고 비슷한 서민이 있고(R)”, “요즘은 중산층이 적고 다 서민이죠. 중산층이 줄었어요(G, H)”라는 응답이 대표적인 예이다. 중산층이 줄어들고 서민이 늘어났다는 응답에서 볼 수 있듯이 서민은 규모도 커졌을 뿐만 아니라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빈민으로도 전락할 수 있는 집단, 다른 집단에 비하여 범위가 넓게 퍼져있는 집단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심층면접에서 특징적인 점이 관찰된다. 서민을 정의하는 기준으로는 경제적 소득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은 반면, 중산층을 정의할 때에는 경제적인 소득 이외에도 학력, 사회적 지위, 직업 등 복합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다. 가령 중산층은 “부부 모두 대학 졸업 이상의 학벌을 가져야 한다(I, M, Q)”라는 응답은 소득 이외에 교육수준의 중요성을 반영한다. 이 외에도 “중산층은 직업도, 학력도, 재산도 고루 갖춘 사람(R, S)” 혹은 “사회적 지위가 필요합니다. 사회의 리더급, 혹은 사회적 명망이 있어야죠. 돈만 많다고 중산층으로 보기는 어렵죠(E, O)”라는 응답은 중산층에 대해서는 소득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준을 적용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응답자들은 중산층도 이질적인 특성을 지닌 집단으로 인식할까? 소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 결과를 통해서 단정적인 결론을 짓기는 어렵지만, 25명 중 20명의 응답자들이 스스로를 서민으로 귀속하기 때문에 중산층의 이질적인 특성을 인식하기보다는 중산층은 서민과 다른, 자신들과 먼 집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스스로를 서민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들은 중산층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부러워하거나 자신들의 위치를 원망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50대 이상의 응답자들은 서민이라는 자신들의 위치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끼거나 현실에 순응하거나 미래에 대하여 희망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령 “그렇게 부럽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인생이니까. 저는 개미처럼 일하면 누구한테 절대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항상 넉넉하게 산다고 생각합니다(I)”라는 응답은 중산층과 자신을 구분하지만 부러워하기 보다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하여 떳떳하게 자긍심을 지니는 태도를 보여준다. 또 자신이 중산

층은 아니지만 “기술이 있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도 일할 수 있고 이제는 회사 다니던 친구들이 나를 부러워한다(F, R, W)”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몇몇 응답자들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며 “자식한테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악착같이 지독하게 살았더니 어느 날 운이 오더라(B, F, L, W)”고 평하기도 한다.

VI. 논의 및 결론

이 논문은 서민이라는 말이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다양한 용례로 빈번히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서민이 누구인지, 서민을 분류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구체적인 자료로는 전국 규모의 설문조사와 소규모 심층면접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심층면접은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의 사례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가설을 검증하거나 인과관계를 분석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서민의 정의와 판별기준, 스스로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탐색적인 수준에서 살펴보았다.

서민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모두에서 경제적인 소득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민에 대한 이미지는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 월 평균 200~300만원의 소득, 영세 자영업 종사, 20평대 전셋집에 살면서 시간, 돈, 마음의 여유가 없이 바쁘게 빠듯하게 사는 사람들이다. 또한 서민은 빈민이나 중산층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며 오히려 빈민이나 중산층과 일부 중첩되는 집단, 언제든 중산층으로 올라설 수 있다는 희망과 빈민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불안을 동시에 지니는 불안정한 집단으로 인식된다.

응답자들의 주관적 계층인식에 대한 질문에는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응답자의 대다수가 스스로를 서민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중산층이 줄어들고 서민이 늘어나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서민의 정체성을 지닌 심층면접 응답자들은 자신이 서민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거나 중산층을 부러워하기

보다는 열심히 살아서 이정도 일구었다는 자부심과 열심히 살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 스스로의 자긍심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중산층이 줄어들고 서민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서민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줄이면서 이들이 국가경제의 버팀목으로 설 수 있도록 다각도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

그동안 서민은 주요 정책대상으로 간주되었지만 위에서 아래로 정의되었고 실제 서민들의 구체적인 특성과 정책욕구를 파악하려는 노력은 미흡하였다. 이 연구는 가설 검증을 실시하지 않고 탐색적인 수준에서 자료를 살펴보았다는 점과 심층면접 결과는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은 있지만, 그동안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서민’이라는 집단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이 연구를 출발점으로 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스스로를 서민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특성과 가치관 및 주관적 계층의식의 결정요인, 서민을 정의하는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인식의 차이, 서민 정체성을 지닌 집단 내의 다양성과 이질성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후속 연구들을 통하여 계층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정책적 수요를 파악하여 제언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강신욱, 이현주, 박수진, 서민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휴먼뉴딜 협동연구총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2] 이진범, “금융포용과 서민금융정책 개선 방안,” 경제와사회, 제96권, pp.141-177, 2012.
 [3] 백중화, “중산 서민층의 시장소득 변화: 시계열 분석,” 보건복지포럼, 제11권, pp.5-18, 2003.
 [4] 남찬섭, 김수정, 송유진, 장세훈, 최영준, “서민의 집합적 의미와 시대적 변화에 관한 탐색적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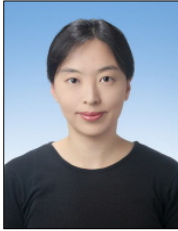
비판사회정책, 제39권, pp.44-82, 2013.
 [5] 김승권, 이태진, “한국인의 서민 인식과 친서민정책의 과제,” 보건복지 Issue and Focus, 제52권, pp.1-8, 2010.
 [6] 양춘, “한국사회 계층연구 동향과 전망,” 한국사회학, 제36권, 제1호, pp.1-21, 2002.
 [7] 신광영, “2000년대 계급/계층 연구의 현황과 과제,” 경제와 사회, 제100권, pp.114-137, 2013.
 [8] 구해근, “세계화 시대의 한국 계급연구를 위한 이론적 모색,” 경제와 사회, 제76권, pp.255-289, 2007.
 [9] 장세훈, “서민의 사회학적 해부: 서민, 중산층의 분화인가 분해인가?,”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15.
 [10] 장세훈, “주택 소유의 관점에 입각한 중산층의 재해석,” 경제와 사회, 제74권, pp.199-227, 2007.
 [11] 한완상, 권태환, 홍두승, 한국의 중산층, 한국일보사, 1987.
 [12] 홍두승, 한국의 중산층,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13] 홍두승, 김병조, “한국의 사회발전과 중산층의 역할: 사회통합을 위한 중산층 육성,” 기로에 선 중산층: 현실진단과 복원의 과제, 한국사회학회 편, 2008.
 [14] 박민진, 정우성, “한계중산층 형성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6권, 제1호, pp.163-185, 2014.
 [15] 남준우,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의 규모 및 소득 변화의 추이,” 노동정책연구, 제7권, 제4호, pp.1-24, 2007.
 [16] 박소현, 안영민, 정규승, 중산층 측정 및 추이분석: 소득 중심으로, 통계개발원 연구보고서, 2014.
 [17] 최효미, “중산층의 사회계층 소속감에 대한 분석: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사례,” 노동리뷰, 제46권, pp.73-84, 2008.
 [18] 조동기, “중산층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관적 계층의식,” 한국연구학, 제29권, 제3호, pp.89-109, 2006.
 [19] 남은영, “한국 중산층의 소비문화: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의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4권, 제4호, pp.126-161, 2010.

[20] 루비 페인, *계층이동의 사다리*, 김우열 옮김, 황금사자, 2011.

저 자 소 개

송 유 진(Yoo-Jean Song)

정회원



- 2004년 5월 : 브라운대학교 사회학과(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원

<관심분야> : 출산, 생활시간, 역할분담, 국제결혼